

보/人/다

보도, 인터뷰를 하다

# 6대째 이어온 ‘통 큰’ 한국 사랑

## 우리나라 특별귀화 1호, 인요한 교수를 만나다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의사가 있다. 그는 한국형 구급차 개발·북한 결핵 퇴치사업 등의 업적을 남겼다. 우리대 학교 동문이자, 의과대 교수와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는 인요한(John A. Linton) 교수(의과대·가정의학)를 만났다.

Q. 순천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A. ‘온돌방 아랫목 교육’이 좋았다. ‘남들이 지키지 않아도 너는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도덕 교육과 어른들의 지혜도 배움의 일부였다. 요즘 한국 사회는 여러 세대가 한데 모여 있을 시간이 적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할 기회가 줄어 안타깝다.

Q. 특별귀화\* 전, 외국인이었기에 한국에서 할 수 있던 일이 있다.

A. 5·18 광주 민주 항쟁 당시 미국 대사인 척 광주시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역사도 데려갔다. 그렇게 들어간 광주시에서 외신 기자의 통역을 도왔다.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의 한 축인 5·18 광주 민주 항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었다.

Q. 외국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시험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A. 의사 국가고시는 기적적으로 합격했다. 학과 특성상 고관절탈구증, 흉반성낭창과 같은 복잡한 한자 단어가 많아 힘들었다. 3개월 동안 한자 공부에만 매진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요한 교수(의과대·가정의학)의 모습이다.

Q. 한국형 구급차를 도입,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A. 기존의 한국 구급차는 응급치료 장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누워서 가는 택시’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난 1993년 15인승 차를 고쳐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 구급차를 개발했다. 환자가 눕고 그 머리맡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1995년에는 화물차를 고쳐 고급형 구급차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구급차의 크기가 작아져 12인승 차량이 주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구급차에는 환자의 머리맡에 구급대원이 앉을 공간이 없어 치료가 어렵다. 이 부분은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

A. ‘유진 벨 재단’\*\*이 설립된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4년째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찍은 엑스레이만 700만 장이 넘는다. 우리대학교 출신인 형님과 7년간 같이 사업을 진행하며 35만 명을 치료했다.

Q. 한국 의료계를 어떻게 평가하며,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A.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다빈치 로봇 수술\*\*\*이 2만 건을 넘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건수다. 한국의 의료사업이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 자신한다. 그러나 개선점을 제시하자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소형화된 구급차 크기를 전과 같이 복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메디컬 컨트롤(medical control)’ 개선이다. 이는 크게 다친 환자를 다룰 때 의료진과 구급대원 간의 소통을 말한다. 마치

막으로는 구급대원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다. 미국에는 구급대원이 치료하는 과정에 규제가 거의 없다. 한국도 자유로운 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가.

A. 단기적으로는 해외환자 유치에 더 힘을 예정이다. 은퇴 후에는 고향인 순천시에 내려가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학교나 병원에 도움이 되는 고문 역할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

Q. 마지막으로 먼 후배인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A.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늘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복 말을 빌려 “통 큰 결단하자”라고도 말하고 싶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통 큰 발전을 이룩했으면 좋겠다.

\*특별귀화: 우리나라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로 기존 국적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추가 취득하는 것

\*\*유진 벨 재단: 지난 1895년 한국으로 파견돼 선교활동을 한 유진 벨 선교사의 선교사역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4대손인 인세반(Stephen W. Linton) 박사가 대북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다빈치 로봇 수술: 대형 절개 없이 작은 구멍에 로봇 기구를 삽입해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는 첨단수술

글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번지현 기자 bodo\_aegya@yonsei.ac.kr  
사진 윤채원 기자 yuncw@yonsei.ac.kr

# 우리의 ‘Right’에 ‘연대’하다

## 1회 연세인권주간, 체험 부스부터 강연까지

지난 24~26일, ‘2019 연세인권주간: Right Now’(아래 인권주간)가 진행됐다. 24일은 국제캠에서, 25~26일은 신촌캠에서 행사가 열렸다. 인권주간은 인권센터 주최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인권센터 측은 행사 취지를 “학내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을 통해 건전한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스 프로그램 ▲전시회 ▲영화 상영회 ▲북카페 ▲강연회 등으로 꾸러졌다.

체험을 통한 공감과 연대

기자가 인권주간 체험을 위해 방문한 백양로에는 ▲심리상담센터 ▲성평등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부스가 설치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 부스에서는 시각장애인·안내견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자는 안내를 착용하고 헤드셋을 낀 채 안내견과 함께 걷는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체험해봤다. 앞은 보이지 않는데 헤드셋에서 “저 개 귀엽다, 이리 와 봐” 같은 말과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다. 의지할 데는 오직 안내견뿐이었다. 짧고 간접적인 체험이었는데도 안내견이 사람들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누군가 나를 쳐다본다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체험한 홍재이(안홍영·17)씨는 “개

를 귀여워하는 행동이 안내견의 주의력을 흐트릴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부스의 ‘인생사진관’에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인생사진관은 참여자의 성별 혹은 나이가 바뀐 사진을 인화해줬다. 기자는 노인을 선택했다. 주름이 생긴 얼굴은 얼마나 할머니와 닮은 듯했다. ‘타인이 돼 보는 경험을 통해 공감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게, 합성된 사진만 봤을 뿐인데도 늙는다는 것과 타인의 삶에 대해 성찰하게 됐다.

이어 ‘나무늬보’의 전시회에 도착했다. 나무늬보는 ‘에이지즘(agism)’, 그중에서도 고령차별주의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는 팀이다. 나무늬보의 전시는 ‘존대’, ‘훈계질’ 등 노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를 꽃 스티커로 덮어 가리거나, 말이나 물건을 보고 소유자의 연령대를 추측해보는 등 참여형 작품이 주를 이뤘다. 특히 나무늬보 팀원이 조부모와 웃을 바퀴 입은 사진과 인터뷰를 잡지 형식으로 담은 ‘크로스드레싱’이 인상적이었다. 찢어진 청바지에 짧은 티셔츠를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나무늬보 전시 담당자 장민경(철학·18)씨는 “전시를 통해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변화하는 인권에 발맞추는 인권의식

지난 26일 저녁 6시 30분에는 윤리인권위원장 전광석 교수(법학전문대학원·사회보장법)의 강연이 진행됐다. ‘한국사회와 인권, 그리고 대학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한국 사회 속 인권 개념의 변천사와 우리대학교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짚었다.

흔히 인권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전 교수는 “인권 개념은 사회에 따라 끊임없이 변했고, 오래된 주제인 동시에 항상 새로운 주제”라고 소개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인권 개념은 계속 변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전후 한국에서는 헌법에 인권을 명시했다. 양성평등과 개인 존엄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에서 여성의 법률행위가 제한됐고, 존속살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패륜이라고 낙인찍혀 일반살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됐다. 지난 1960년대에는 근대화와 산업화 바람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 거시적 국가목표가 개인의 인권을 압도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민주화와 인권의식이 고취되면서 새로운 인권 개념이 등장했다. 사생활의 자유나 환경권 등을 인권 범주에 넣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개인정보나 동물의 기본권에

대한 담론도 형성됐다. 인권의 범위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동시에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

전 교수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공동체도 이에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학내 성폭력 사건이 학내구성원 간 의식 수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교수가 학생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사례는 성인식 부족의 문제”라며 “이는 남학생이나 교수가 그동안 해오던 관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도구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교수는 2차 가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많다”며 “인권침해 행위 이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의 개념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강연은 마무리됐다.

인권은 모호하고 어려운 주제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안내견을 쓰다듬지 않는 것과 같이 사소한 존중으로 일상 속 인권 수호를 시작할 수 있다. 인권센터 측은 “인권주간이 인권센터 주최의 첫 교내 인권 관련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향후 우리대학교 인권문화를 선도하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속살인: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

글 박재후 기자 bodo\_hooya@yonsei.ac.kr  
정현지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이희연 기자 hyeun5939@yonsei.ac.kr

▶ 장애학생지원센터 부스에서 안내견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